

## 800억달러 규모 세계 타이어 시장

세계 타이어 시장은 중국 시장 성장과 환차익으로 인해 03년도에 전년대비 12% 상승된 800억달러의 매출고를 올렸으며 금년에도 상승 가도를 지속하고 있다. 상반기 실적 보도에 따르면 불안정한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당초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내부 비용은 오히려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03년 수익의 대부분은 150개 다국적 타이어 회사들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달러화 약세 환차익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전망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상반기 실적은 생산원가 감소와 고성능 타이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를 상회할 전망이다.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75개 타이어 회사 중에 중국회사가 무려 16개사나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 중국업체들의 매출액은 4억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자료에 의하면 대 미국 자격을 갖춘 중국의 타이어 공장은 3년 전에는 45개사에 불과했으나 금년에는 120개사로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국적 기업과 중국 회사들의 지속적인 투자로 중국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타이어 업계의 매출액 순위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미쉐린 이 약간의 판매하락에도 불구하고 타이어업계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브릿지스톤(Bridgestone)이 2위, 굿이어(Goodyear)가 3위, 독일 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03년도 상위 5개사의 매출액을 보면 미쉐린(Michelin) 162억불, 브릿지스톤 148억불, 굿이어 136억불, 컨티넨탈 56억불, 피렐리(Pirelli)가 33억불을 기록했다.

03년 9월에서 04년 8월까지의 연간 매출액이 10억달러가 넘는 회사는 11개로서 생산라인 현대화 및 확장에 총 20억불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유럽 타이어 제조사들 중에서 미쉐린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4억5,000만달러, 콘티넨탈은 3억8900만달러, 피렐리는 1억1,5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유럽의 3대 타이어 업체들의 투자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미쉐린

- 브라질 공장에 7400만달러 투자, 래디알 트럭용 타이어 생산 40% 증산
- 헝가리 공장에 5900만달러 투자, 래디알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 돌입
- 인도에 7000만달러 투자,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생산라인 신설
-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1억달러 투자

### • 콘티넨탈

- 브라질 타이어 공장 신축에 2006년까지 1억 8300만달러 투자
- 2008년까지 브라질 공장에 상업용 타이어 공장 증축에 1억2200만달러 투자
- 체코에 고성능 래디알 타이어 공장 신축에 8400만달러 투자

### • 피렐리

- 트럭용 타이어 생산 라인 확장 및 현대화에 1억1500만달러 투자
- 러시아 4개의 공장 확장을 위해 4년 내에 3억달러 투자

(KOTRA 디트로이트, 브뤼셀 무역관 04년 10월)

## 미국, 자동차 타이어 압력모니터링 장치 의무화 추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연방자동차 안전 기준(49 CFR Parts 571 and 585)을 상정했다.

이는 미국에서 주행되는 차량의 9%정도가 4타이어중 하나가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것이 많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NHTSA의 연구 결과에 의한 것이다. 또한 타이어의 공기압 부족은 타이어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연료 소모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기 장착이 운전자의 안전과 경제적 이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준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타이어 압력이 적정수준의 25%이상 떨어지게 될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TPMS))를 신규 자동차에 장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동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해야 한다.

새로운 기준은 승용차, 트럭, 버스 등 총 중량 1만파운드 이하의 경차량(Light Vehicle)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발췌 : KOTRA 시카고 무역관, 04년 9월〉

## 중국 자동차 시장 불안, 세계 경제에 찬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시장의 둔화는 빠른 성장세를 보여 온 여타의 산업들에도 경기 침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50%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지난 9월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3.6% 감소하는 등 울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최다 판매를 기록한 바 있는 인기 차종들의 판매 또한 지난 9월에 50% 이상의 감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개월 동안의 자동차 총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17%가 증가해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M의 중국 담당 CEO는 소비자 신뢰도가 관건이며 경기가 불안할 경우 소비자들은 돈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유가상승은 자동차 판매의 둔화를 증폭시키고 있

는데 자동차 판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장 둔화의 원인으로 정부의 소비자 대출 억제, 유가 상승, 전반적인 경기둔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시장의 불안은 향후 20년 후의 중국시장을 예상하고 수십억 달러의 투자확대를 계획한 다수의 외국 기업들에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 2분기에 9.6% 성장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3분기에는 8.9%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아직까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의 경기침체가 미칠 영향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시장 경기하락의 가장 큰 문제는 재고 축적으로 이는 생산업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 딜러들에게도 압박이 되고 있다. 중국 자동차협회는 올해 1사분기에 8만대였던 재고자동차가 8월 들어서 11만5,000대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발췌 :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04년 10월〉

## 노르웨이, 겨울용 타이어 시장 호황

매해 10월과 11월은 노르웨이의 타이어 시장의 매출액이 가장 큰 시기이다. 노르웨이의 특유한 춥고 긴 그리고 눈이 많은 기후환경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용 타이어를 반드시 교환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10월 중순부터 타이어 교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때를 맞춰 노르웨이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일반인들의 승용차 구입도 좋고 대신 신형 승용차 구입이 많아지면서 타이어 시장의 판매 호조에 탄력을 불어 넣고 주고 있다.

노르웨이 타이어 시장은 연간 16억NOK의 규모이며, 대형 수입업체인 5개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32%인 가장 큰 브랜드는 Continental로, 공급사인 Continetal Norge AS의 전년도 매출액이 5억 1,000만NOK에서 올해는 30% 이상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Nokian Norge AS의 노키안 타이어도 전년도 2억9,200만NOK에서 20%의 성장액인 3억5,000만 NOK 매출을 자신하고 있다.

이 두 회사는 전국에 타이어 유통 및 서비스 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Continetal Norge AS는 Dekkman AS를 운영, 연간 4억 6,000NOK의 판매액을 올리고 있고, Norkian Tyres PLC사는 Vianor라는 유통 체인점을 통해 약 4억 NOK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이외에 Goodyear Dunlop Tiers Norge AS가 1억7,000만NOK, Gjerde & Byhring AS가 1억7,000만 NOK, 그리고 프랑스의 Michelin 타이어사가 1억6000만NOK의 판매액을 기록하면서 노르웨이 타이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들도 올해 평균 10%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순수 판매수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췌 : KOTRA 오슬로 무역관 04년 11월〉

## 멕시코, 한국산 타이어 관세 인하

멕시코 경제부는 8월 10일부터 타이어 12개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5%로 인하한다고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년초 관세인상으로 수출중단 위기를 겪었던 한국 타이어 업계의 대멕시코 타이어 수출이 실질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멕시코 경제부는 04년 1월 1일부로 자국 타이어 산업보호조치의 일환 및 FTA 미체결국 타이어 수입억제를 위해 타이어 HS 코드 세분화 및 12개 타이어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이 조치를 통해 기존 23% 종가세가 종량세 35%로 전환돼 타이어에 대한 실질관세율이 25~80%에 달하는 효과를 가져와 우리나라의 상반기 대멕시코 타이어 수출이 03년 1,815만 5,000달러에서 금년에 179만 8,000달러로 90.1%나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왔다.

또한, 이 조치에 멕시코 현지 미생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율 인상도 포함되어 있어 자국산업 보호 조치라는 멕시코측의 명분을 약하게 했으며, 한국측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멕시코 정부와의 면담 및 상세 반박자료 제출을 통해 동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8월 9일자 관보를 통해 기존에 종량세로 전환한 12개 품목에 대해 8월 10일부터 WTO 양허관세율인 종가세 35%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관련업계에서는 비록 03년 종전 관세율인 23%보다 높은 35%의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최근 전반적인 타이어제품 시장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 하반기에는 전년수준으로 대멕시코 수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 소식에 따른 현지 바이어들의 추가 주문이 이어지고 있어 금년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발췌 : KOTRA 멕시코무역관, 04년 8월〉

## 폴란드 타이어시장 확대일로

올 폴란드 자동차 시장(신차 및 중고차)이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폴란드 대형 타이어 생산업체 Debica의 최대 투자자인 굿이어(Goodyear)에 의하면, 금년도 교체 시장의 승용차용 및 트럭용 타이어 판매액은 2억 7,000만달러에 달해 03년 대비 10%의 성장이 전망되고, 수량기준으로는 금년중 715만개의 타이어가 판매돼 전년에 비해 3%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굿이어사는 예측했다.

부문별로 보면,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는 624만개로 2.8% 늘어나고 트럭용 타이어는 91만개가 판매돼 4.3% 신장될 것으로 예측 되었는데, 금액기준 타이어 판매 증가율이 수량기준보다 높은 것은 최근 폴란드 시장의 고급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03년의 경향을 보면, 성능 좋은 타이어, 즉, 대형, 고내구성 및 고속타이어의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폴란드 타이어시장의 구조는 아직 서유럽 국가의 구조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관계자에 의하면, 타이어 수요의 상승은 폴란드 내 자동차 숫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상반기의 경우 공급가격 상승을 우려한 승용차(신차) 수요가 급증한 바 있으며, EU에 가입한 5월 이후로는 중고차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고 타이어와 경쟁하는 저가 브랜드의 수가 증가해 왔다.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제 새 타이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믿는다”는 Debica사 판매이사의 이야기이다.

타이어 수요 및 판매 증가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타이어 수입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도 타이어 수입(\*HS 4011 기준이며, 자동차용을 포함한 모든 타이어임)은 전년동기 대비 46.4% 증가한 1억 7,281만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Debica, Stomil Olsztyn, Bridgestone/Firestone 등 폴란드 대형 타이어 제조업체 (대부분 외국계)들이 수출비중을 점점 더 높임에 따라 폴란드의 타이어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발췌 : KOTRA 바르샤바 한국무역관, 04년 9월>

## 쿠웨이트, 승용차 타이어시장 연 10% 이상 증가세

쿠웨이트의 승용차용 타이어 수입규모는 연간 6,000만달러 정도이며, 매년 10%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증가세는 이라크전 이후 일자리를 찾아 대거 유입되고 있는 제3국 인력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OYO, GOODYEAR, BRIDGESTON, MICHELIN 등 다양한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과 한국산이 전체 시장규모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브랜드별 점유율>

브랜 드	국 명	점유율(%)	브랜 드	국 명	점유율(%)
HANKOOK	한 국	7	KUMHO	한 국	2
BRIDGESTON	일 본	10	DUNLOP	일 본	11
TOYO	일 본	11	YOKOHAMA	일 본	11
MICHELIN	프랑스	8	FALCON	일 본	5
GOODYEAR	미 국	4	CONTINENTAL	독 일	4
PERLI	이테리	3	WONSON	말레이시아	2
FEDRAL	대 만	2	OTHERS	-	20

(자료원 : 수입상 실사)

소비자별 선호브랜드를 살펴보면, 전체인구 250만중 90만을 차지하는 쿠웨이트자국민들은 고급차를 선호하고 있어 타이어 또한 고급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60만 제 3국인 들은 중저가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02년부터 일본 요코하마 타이어의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NANKANG브랜드가 쿠웨이트 시장에 진출하여 저가공세를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과의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중저가뿐만 아니라 고급브랜드 역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가격은 예전에 비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한국산은 품질 및 내구성이 우수할 뿐만아니라 가격도 MICHELIN, TOYO등에 비해 약 30% 이상 싸게 공급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크게 호평 받고 있으나 문제는 공급이 불충분한 것이 흠이라고 바이어들은 귀뜸하고 있다.

<발췌 :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04년 10월>